

# 파르테논은 어디서 온 것일까?

Where did Parthenon come from?

글. 최동호 Choi, Dongho · KIRA | 건축사사무소 마당소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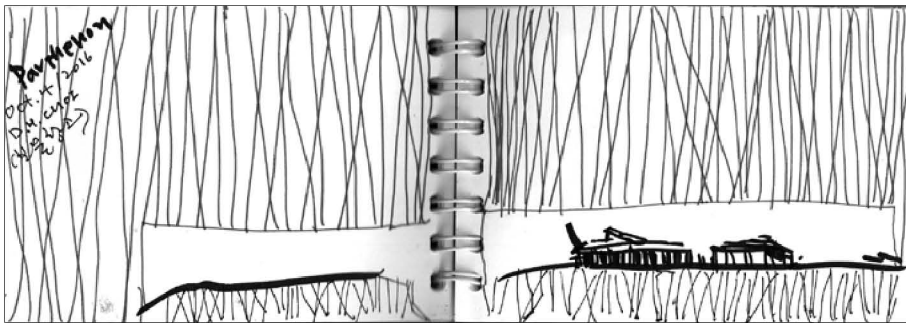


그림 1) 박물관 진열 케이스

아크로폴리스에 서 있는 파르테논 작품은 마치 박물관 유리 진열케이스에 전시되어 있는 보물처럼 보인다. 비록 손상을 입었다 할지라도 원형의 작품 그 이상의 가치를 전하고 있다. 폐허의 미학은 폐허 그 자체의 고귀한 숨결이 있는 것이다.



그림 2) 파르테논 민얼굴

파르테논은 대표적인 신전건축으로서 카논의 형식을 가지며, 엔타시스와 기단의 착각 보정 설계를 볼 수 있었다. 그리스 '고대미학' 건축의 주제는 <카논, 수와 적도, 비례미, 자연의 모방, 형식과 내용의 조화>로 나타났다. 따라서 고졸기와 고전기 건축미는 비례미와 심메트리아의 조화미, 데코룸과 적도의 건축미가 파악됐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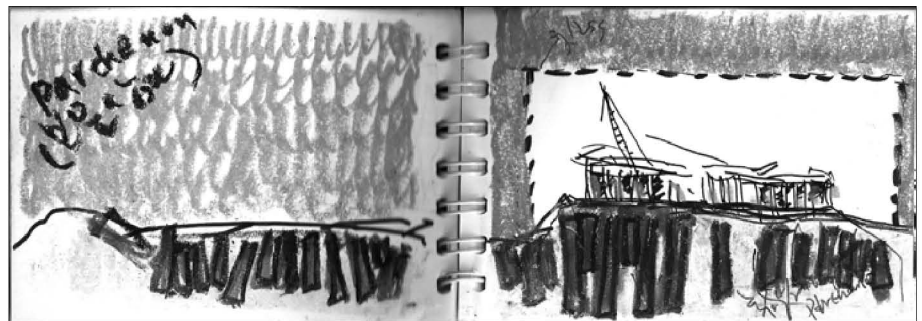


그림 3) 신전의 기둥들

파르테논 신전의 기둥들이 나뒹굴고 있다. 폐허가 된 파르테논! 그러나 아름답다. 그 <새로운 아름다움>을 아우구스티누스(Augustine, 354-430)가 보았다. 그는 어떤 낯선 시간 속에서 잔인하지 않고 지루하지 않은 새로운 아름다움을 찾은 다름 아닌 ‘아름다움이라는 이름’이었고, 성 프란체스코(St. Francis of Assisi, 1182-1226)의 ‘아름다운 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’라는 의미였다.

이러한 미의 흔적으로서의 아름다움이 파르테논에 있었다. 파르테논 건축은 신적척도를 가지고 있었다. 이 건축의 척도가 ‘아네르 테트라코노스’이다.

그리스인들은 ‘인체가 사각형 또는 원 속에(homo ad circulum and homo ad quarratum)’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고,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고 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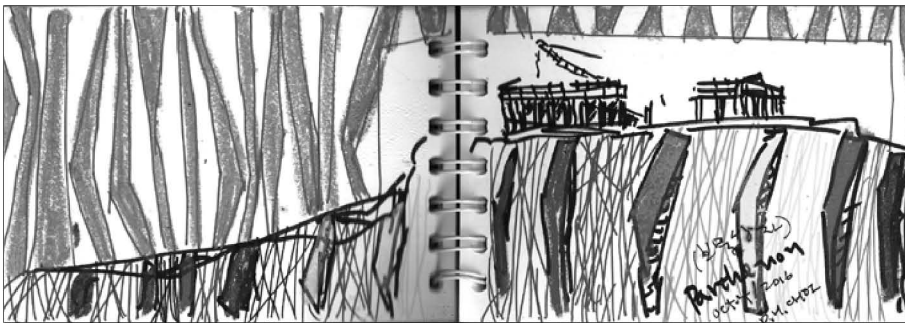


그림 4) 보물상자

피치노는 “미는 어디에 있는가? 미는 물체의 속성이 아니다”라며, “아름다운 것은 물체가 아니라, 우리의 눈과 정신이 창조해 내는 물체의 이미지 속에서 보았다”고 말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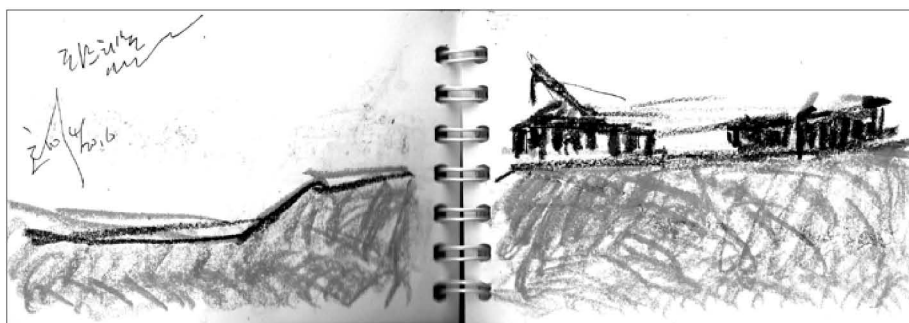


그림 5) 폐허

만약 미가 물체 속에 있다면, 파르테논의 <폐허의 미학>은 미를 빌어온 것이다. 미와 아름다운 사물은 구별된다. 미는 천성적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아름다움 자체,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것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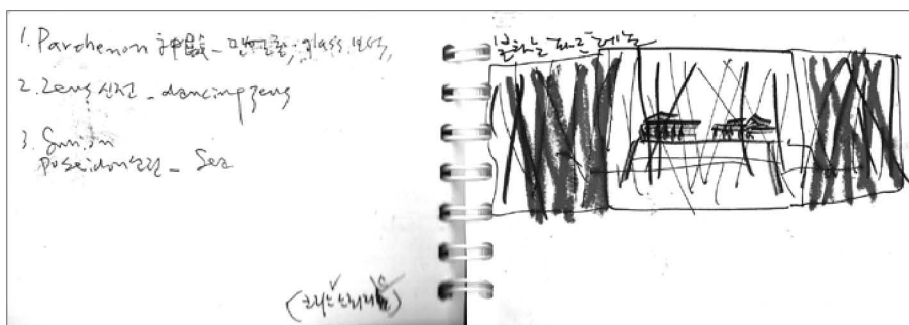


그림 6) 화마